

AUTHOR 이오갑

TITLE 칼빈의 성서론

IN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49 (2007), 123-148.

# 칼빈의 성서론

이오갑

그리스도대학교 부교수, 조직신학

## I. 서론

칼빈의 성서론은 비교적 많이 연구된 주제이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더 연구되고,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그의 성서론은 가장 논쟁이 많았던 것들 중 하나였다. 그 논쟁은 성서의 영감설( inspiration)을 둘러싼 것으로서, 핵심은 칼빈의 영감설이 축자적(litérale)이나, 아니면 교리적(doctrinale)이나 하는 문제였다.<sup>1)</sup> 이 논쟁은 연구자들이 속한 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즉 자신의 교회의 성

1) 칼빈의 입장이 축자영감설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J. Murray,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0),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6);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ed. by S. G. Crai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1); E.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2ed printing (Grand Rapids: Eerdmans, 1994); 신복운, 『칼빈의 신학사상』(서울: 성광문화사, 1993). 반면에 교리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H. Clavier, *Etudes sur le calvinisme* (Paris: Fishbacher, 1936); F.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e éd. (Genève: Labor et Fides, 1985); W. Niesel,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J. Haroutunian, 『칼빈 주석의 정수』, 이종태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김이근, 『칼빈의 성서관』, 『칼빈 신학의 현대적 이해』(서울: 한국신학대 출판부, 1978);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7) 등.

서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칼빈을 해석해 왔던 경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쟁은 학문 외적인 요인에 의해 강화되었고, 그만큼 해소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문제는 칼빈의 저술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 외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이제까지 연구자들이 칼빈의 저술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주장' 보다는 '증거'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닌 칼빈 자신의 글을 몇 군데가 아니라, 가능한 한 충분히 많은 곳에서 살펴보며, 또 본문과 단어들의 의미를 그 정황 속에서, 그리고 그 용례 속에서 읽고 해석해 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칼빈 자신도 성서론을 매우 논쟁적으로 다루었다. 그것은 주로 성서의 권위(authorité)에 관계된 것이었다. 성서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또는 어디에서 오는가? 거기에 따라 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투쟁에서 정당성을 갖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 있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문제를 종교개혁의 존립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덧붙여서 성서의 권위 문제는 칼빈의 성서관과 루터의 성서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흥미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셋째, 그리스도교에서 구약성서에 대해서는 언제나 입장의 차이를 보여 왔다. 오래 전에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은 구약성서를 배제했으며, 종교개혁 당시에는 세르베투스나 일부 재세례파들이 구약성서의 계시성과 의미를 약화시키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학문적인 차원이기는 해도, 구약성서를 독립적으로 보려는 흐름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와 분리될 수 없는,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로 인정했다. 동시에 두 성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유들을 설명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 칼빈의 이론들은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신, 구약 관계의 전범(典範)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고전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논문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칼빈의 성서론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그런 논쟁점들만을 다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흥미 있는 주제라고 해도, 여기서는 칼빈의 성서론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그런 논점들은 칼빈의 성서론 전체 속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 II. 성서란 무엇인가?

칼빈에게서 성서는 우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는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말한다. “하나님 안에서 말고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생명은 없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달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이고, 예언서들이고, 복음서이다.”<sup>2)</sup>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칼빈은 종종 그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과 ‘성서’를 호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의 성서론을 다루는 장의 한 부분만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둘은 모두 말씀으로부터 얻어진다.”<sup>3)</sup>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다. 칼빈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먼저, 칼빈은 말씀이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진리가 언제나 생생하게 세대에 세대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족장들에게 직접 위탁했던 계시들이 기록되기를 원하셨다.”<sup>4)</sup> 그래서 말씀과 성서는 구분되어야 한다. 칼빈은 그 둘을 구분해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말씀은 성서 안에 “포함된”(contenu) 것이지만 성서 자체가 아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설교에서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안에, 예언서들 안에, 그리고 복음서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지를 선포하십니다.”<sup>5)</sup> “성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에게 속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율법과 예언서들 속에 포함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sup>6)</sup> 또 미가서 설교에서도 말한다. “우리는

2) Commentaire, 1er Pierre 1;25.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4 volumes (Toulouse: Société des Livres Religieux, 1892-1894), III, 465-466.

3) *Institution*, I, 6/1. 굵은체는 필자가 강조한 것임.

4) *Ibid.*, 6/2.

5) 24e sermon sur 1er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3.

6) *Ibid.*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반박 없이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데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옛날부터 성서 안에 포함된 것을 의심하기를 원하는 환상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의 예언 교리들 안에서, 그리고 복음서들 안에서 그분에 대해 얻는 모든 것에 대해 충분히 동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일부러 눈감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7)</sup>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그는(하나님) 우리가 성서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sup>8)</sup> “즉... 각 사람은 율법과 예언서들과 그리고 복음서 안에 포함된 진리에 따라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한다는 것입니다.”<sup>9)</sup> 즉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과 분리되거나, 말씀이 없는 그 자체는 “죽은 것”과 같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하시며 자신의 의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생명력이 없는 하나의 죽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sup>10)</sup> 그런 점에서 성서와 말씀의 관계는 형식과 내용, 상징과 실체, 혹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성서의 그런 성격을 다양한 은유들로써 설명한다.

성서는 우선 “형상”(image)으로 비유된다. “(성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의 형상입니다.”<sup>11)</sup> 또 성서는 “거울”<sup>12)</sup>이며, “창조주 하나님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안내자이며 교사”<sup>13)</sup>이기도 하다. 그러나 칼빈에게서 가장 흔한 은유는 ‘안경’이다. “노인이나, 눈이 약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희미한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다듬어진 서체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책을 펴 보인다고 해도, 그들이 글을 보기는 본다고 할지라도, 안경이 없다면, 무진 애를 써서 겨우 두 마디 단어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을 써서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분명히 읽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성서도 다른 방식으로는 혼동되고 막막할

7) Sermon sur le Michée, *Supplementa*, V, 89.

8) 24e sermon sur 1er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4.

9) 25e sermon sur 1er Timothée, 4,1-2, *Opera Calvini*, LIV, 295.

10) 24e sermon sur 1er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5.

11) 33e sermon sur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 281. R. Stauffe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e : Peter Lang, 1978), 73의 인용문을 우리의 문맥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12) *Institution*, I, 87.

13) *Ibid.*, 6장의 제목: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성서가 우리의 안내자이고 교사여야 한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인식을 우리 정신 속에 가능하게 해주며, 모호함을 제거해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준다.”<sup>14)</sup>

### III. 성서의 이유와 목적

칼빈에 따르면, 성서가 주어진 이유는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자연의 완전함이나 아름다움으로써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사건들과 역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다른, 최고의 대책이 필요했다.”<sup>15)</sup>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또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서 보여주려는 것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지적하고 생생하게 그려 주었다...”<sup>16)</sup>

결국 성서는 인간을 위해서 주어졌다. 즉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목적이다.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다. “그래서 비록 그가 자신에게 더 가깝고 더 친근하게 영접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하나의 특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알리고자 말씀의 빛을 더해 주신 것은 전혀 헛된 일이 아니었다.”<sup>17)</sup>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뿐만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말씀으로부터 얻

14) *Ibid.*, 6/1.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지와 우둔함, 게다가 우리들의 악의에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경험으로써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에도 그의 말씀을 더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경탄할 만한 선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Sermon du lundy 4e jour de septembre, 1559, Sermon sur la Genèse, 1:1-2, Supplementa, XI/1, 3.* 안경의 비유는 또 7ème sermon sur le chapitre 28 du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II, 441, 17e sermon sur II Samuel, Supplementa, I, 151* 등.

15) *Institution, I, 6/1.*

16) *Ibid.*, 6/3.

17) *Institution, I, 6/1.*

어진다.”<sup>18)</sup> 또 그는 디모데후서 설교에서 말한다.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존엄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구원에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sup>19)</sup>

성서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점은 칼빈의 성서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성서는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책도 아니고, 인간과 세계의 물리적, 자연적 신비를 풀어 주는 물리학이나 생물학 교과서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의 책이다. 성서는 그 목적인 ‘구원’에 “유익하고” “필요하며”, 또 “적합한” 지식을 담고 있다. 칼빈이 중시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이다. 그는 디모데후서 설교에서 말한다. “우리는 또 그가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셨을 때, 우리의 유익(profit)과 우리의 구원(salut)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익한 것들로써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고(bon) 적합하며(propre) 우리가 거기로부터 어떤 유용성(usage)을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적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sup>20)</sup> “성서는 우리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requis) 모든 것을 포함시키셨습니다.”<sup>21)</sup>

#### IV. 성서의 권위

칼빈은 성서의 권위를 그것의 기원에서 찾았다. 즉 성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중시하고, 그것으로써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칼빈에 따르면 성서의 기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바로 그 점에서 성서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는 디모데후서 설교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 말고는 그 어떤 확고한 권위도 없습니다.”<sup>22)</sup> 또 기독교 강요에서도 명시

18) *Ibid.* 짧은체는 필자의 강조

19) 24e sermon sur 2e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7.

20) *Ibid.*, 285.

21) 25e sermon sur 1er Timothée, 4:1-2, *Opera Calvini*, LIV, 295.

22) 24e sermon sur 2e Timothée, *Opera Calvini*, LIV, 285, 286.

한다. “성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며, 그 결과 그 속에 포함 되어 있는 교리는 하늘의 것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sup>23)</sup> “성서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터 하시는 육성을 친히 듣는 것같이 내려왔다고 믿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신자들에 대하여 완전한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sup>24)</sup> 또 칼빈은 성서의 저자를 ‘성령’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sup>25)</sup>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이든지 성서가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성서의 권위가 그것의 신적 기원에 있다는 것은 칼빈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또 확고한 원칙이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근본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칼빈이 성서의 신적 기원을 강조했던 것은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의 결과 생겨난 개혁교회의 정당성을 위해서였다. 칼빈에 따르면, 성서는 단순한 책이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서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대상이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르지 않다면, 교회는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교회가 성서의 말씀에 예속되지, 성서가 교회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근거로써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들과 대결한다. 로마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서가 권위를 가지는 것은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할 것인가? 그리고 성서가 현재까지 무사하게 손상 없이 전래되어 왔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는가? 바로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보증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그런 주장을 배격한다. “성서는 그 자체가 이미 진리로서 교회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는 밝음과 어둠, 흰 것과 검은 것, 단 것과 쓴 것은 그 색깔과 맛으로써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것과 같다.”<sup>26)</sup>

또 로마 교회에 따르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교회

23) *Institution*, I, 7/4.

24) *Ibid.*, 7/1. 또 “...하나님은 이른바 하늘의 증거라고 불리는 환상이나 신탁으로써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인간의 모든 생각들을 능가하는 신앙을 덧 붙여 주셨다.” I, 6/2. 또 I, 8/12.

25) *Ibid.*, 9/2.

26) *Institution*, I, 7/2.



이다. 즉 어떤 책이 성경이고 어떤 책은 성경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교회가 결정한다. 따라서 성서의 권위는 교회로부터 오며, 교회로부터 인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그런 주장들을 "(만일 그렇다면) 영원하고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마치 인간의 환상에 의존하는 것처럼 된다."고 일축한다.<sup>27)</sup> 종교개혁자는 바울의 말을 빌어서 설명한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거 위에 세워진다." 즉 성서가 교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서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사도들의 설교와 예언자들의 책들이 있었다.<sup>28)</sup>

또 칼빈은 로마 교회의 "성서를 해석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주장도 거부한다. "교회가 마치 자신의 서명으로써... 전에 의심스러운 것이나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을 정당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서를 자신의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로 인식해서, 성서에 붙잡혀서 경건의 의무로써 성서를 귀히 여기고 영예롭게 해야 한다."<sup>29)</sup>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서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자주 인용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sup>30)</sup> 칼빈은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즉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도들과의 논쟁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전후 문맥을 보면, 교회의 권위는 신앙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말한다. "아직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존경으로써 고분고분해져서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용인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마치 무지한 자들을 복음의 신앙으로 이끌고 준비시키는 입문과 같다."<sup>31)</sup>

그러나 같은 종교개혁자라고 할지라도 루터는 성서의 권위를 그것의 기원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칼빈이 루터와 다른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요컨대, 앙드레 구넬이 잘 보았듯이,

27) *Ibid.*, 7/1.

28) *Ibid.*, 7/2.

29) *Ibid.*

30) *Ibid.*, 7/3.

31) *Ibid.*

루터와 칼빈은 성서의 권위를 정반대의 방향에서 찾는다.<sup>32)</sup> 루터는 성서의 권위를 그것의 목적에서 찾았다. 성서는 어떤 점에서 권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서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즉 성서가 권위를 갖는 이유는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데 있다. 즉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만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성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밝혀 주지 않으면 그것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성서의 모든 책들을 전부 똑같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야고보서 같은 책들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였다.

반면에 칼빈은, 루터와는 정반대로, 성서의 권위를 그것의 기원, 즉 성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데서 찾았기 때문에, 성서의 어떤 책이, 또는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 권위는 변함이 없다. 제네바에서 카스텔리옹이 성경의 아가서의 정경성을 부정했을 때 칼빈이 비판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것처럼 칼빈은 성경 66권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말씀으로서 동등한 권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가해서, 칼빈이 모든 책들의 권위를 동등하게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였다는 점을 말해야 할 것이다. 칼빈은 성서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글자”라고 했다. 그 점에서는 루터의 사상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지 귀에만 올려달 뿐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죽은 문자요 그의 제자들을 죽이는 문자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써 그것이 의지 가운데 생생하게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살아 있는 말씀이다.”<sup>33)</sup> 물론 이 인용은 말씀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목적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성서가 ‘죽은 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성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합목적성의 여부에 따라 가치나 중요성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 실제로 칼빈

32) A. Gounelle, *La Réforme et l' autorité des Ecritures* (Bruxelles : Eglise Protestante de Bruxelles, 1988), 16-18.

33) *Institution*, I, 9/3.

은 성서의 거의 전 권을 주석하였으나 유독 아가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은 손대지 않은 채 남겨 두었다. 그 이유를 힘이나 시간의 부족 탓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성서들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 V. 성서와 영감

칼빈의 성서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 왔고, 또 가장 흥미 있는 부분은 아마도 그의 영감설(*inspiration*)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영감설이란 성서가 신적인 혹은 영적인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교리이다. 두메르그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리로서의 영감설은 칼빈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칼빈의 사후 100년 이상이 경과될 때까지도 독자영감설이나 그와 유사한 표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감설은 1675년에 발표된 *Formula consensus ecclesiarum helveticarum*(스위스 교회 일치 신조)에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다뤄지는데 거기에서는 기계적(*mechanique*) 영감설이 주장되었다. 그 신조는 성서 히브리어 텍스트들의 모음들조차도 영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4)</sup>

그렇다면 근대적인 영감설의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은 영감설을 받아들였을까? 만일 받아들였다면 그의 영감설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 흔히 말하는 축자적, 구술적, 기계적 영감설이었을까? 아니면 교리적, 내용적 영감설이었을까? 그런 점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칼빈이 세분되고 발전된 형태의 영감설을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영감론자였다는 것이 사실이다. 칼빈은 성서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며, 성서 기자들은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했다고 확신했다. 칼빈은 주석서들과 설교들에서 다양하게 말한다. "그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서가 신적 영감을 받았다(*inspirée divinement*)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를 다른 모든 종교로부터 구분짓는 원칙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으며,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감각으로써가 아니라 성령의 기관들으로써, 도구로써 말했다는 것과, 그들은 그들이

34) E. Doumergue, 73.

위로부터 받은 것을 단지 선포했을 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sup>35)</sup>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다. 즉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환상에 따라서 자기들의 두뇌가 만들어 낸 것을 말했던 것이 아니다. 그가(베드로) 예언자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그것이 그들의 이해(entendement)로부터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예언자들과 술사들이, 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열광과 광란 중에 사로잡혔다고 애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것은 어떤 것도 감히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완전한 순종 가운데서 따랐기 때문이다.”<sup>36)</sup> “성령의 유일한 출처가 하나님이며 인간적인 것은 전혀 섞이지 않았다.”<sup>37)</sup> “성령이 성 바울의 혀를 지배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서 쓸데없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sup>38)</sup> “성 바울이 성서가 신적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sup>39)</sup>

성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서 저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표현했다. 즉 성서는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부터”<sup>40)</sup> 나온 말씀이다. 그는 신명기 설교에서 말한다. “성서가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sup>41)</sup> 그는 또 디모데 후서 주석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을 지칭하며 말한다. “그들은(모세와 예언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대로 말했고, 진정한 것을 전혀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증거했다. 그들에게서 말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이었다.”<sup>42)</sup> 뿐만 아니라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입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 비유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의 입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입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35) Commentaire, 2e Tim. 3;16, IV, 246.

36) Commentaire, 2e Piene 1;20, IV, 626.

37) Commentaire, 2e Tim. 3;16, IV, 246.

38) 25e sermon sur 2e Timothée, 4;1-2, *Opera Calvini*, LIV, 298.

39) 24e sermon sur 1er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5.

40) *Institution*, I, 7/5. cf. E. Doumergue, 59.

41) Sermon sur le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 714; E. Doumergue, IV, 72.

42) Commentaire, 2e Tim. 3;16, IV, 246.

이해해야 한다.”<sup>43)</sup> “성 바울이 기록으로써 우리에게 남겨 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모든 그의 교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명시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권위와 경외심 가운데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44)</sup> 요컨대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관(organe)이다. 칼빈은 모세와 이사야를 지칭하며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관들이었으므로, 그들의 혀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오직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보좌의 신실한 분배자들(dispensateurs)이었다는 것입니다.”<sup>45)</sup>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성서의 기자들을 지배하고,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게 했다고도 말했다. “...율법과 예언서들은 사람들의 입맛이나 의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sup>46)</sup> 그가 성서 기자들을 “서기”(scribe)나 “작가”(écrivain), “비서”(secrétaire), “공증인”(notaire)으로 묘사했던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는 존재들이었다. “성서라는 이 말은 모세가 율법이나 찬양의 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유의합시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입 아래 있는 작가이거나 서기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서가 자기에게 명령된 것을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모세가 자기 머리 속에서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sup>47)</sup>

그런 점에서 칼빈이 성서의 영감설을 믿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는 영감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대로 받아쓰게 했다”는 점에서 “구술적”(verbale) 영감설을 지지했던 것같이 생각된다. 또 기자들이 “성령의 도구로써”, “그들 자신의 것들을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은 하나도 없고”, “인간적인 것은 전혀 섞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입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표현들로부터 “축자적”(littérale)이거나 혹은 “기계적”(mechanique)인 영감설을 지지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43) Commentaire, 1er Pierre, 1:25; E. Doumergue, 72. 또 Commentaire, 2e Pierre, 1:20,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 성령을 그들의 안내자로 따르고 그들의 입이 성전이 되어 그가 그들 안에서 다스리게 하였다.” IV, 626.

44) 1er sermon sur 2e Timothée, 1:1-2, *Opera Calvini*, LIV, 5.

45) 24e sermon sur 1er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6.

46) Commentaire, 2e Tim. 3:16, IV, 246.

47) Sermon sur le Deutéronome, *Opera Calvini*, XXVII, 647; E. Doumergue, IV, 72.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칼빈의 영감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런 주장의 근거는 약해진다.

칼빈은 성서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불러 주는 것을 받아쓰는 서기들이었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다 잘 받아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신실하고"(fidele),<sup>48)</sup> "완전한 순종 가운데서 따른"<sup>49)</sup> 사람들이기는 했으나, 완전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완전하고 때로 오류를 범하기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김의 평가가 매우 적절하다. "물론 칼빈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구술'과 '필기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단에서 성경의 무오론과 축자영감설을 찾는 사람들은 칼빈 자신이 비서들과 학생들에게 구술한 후 교정한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물론 하나님과 성령은 오류가 없으시며 성령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가장 잘 섬기도록 형성되었다. 하지만 도구인 인간은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었다. 이사야는 계속 위대한 시인으로 존재하며 에스겔은 지루할 만큼 반복을 계속했다. 칼빈은 모든 실수를 제거하는 기적들이 연속될 것을 가정하지 않았다."<sup>50)</sup>

칼빈은 실제로 성서를 주석하거나 설명하면서 성서 기자들의 오류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혹은 변호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런 예를 보면, 그는 축자영감설과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칼빈은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원시 세계의 물이 갈라져서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는 하늘 위의 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구름" 또는 "수증기"일 뿐이라고 했다. "그것은(하늘 위의 물) 상식적으로는 이상하고 또 완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창조하셨고,

48) Cf.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기관들이었으므로, 그들의 혀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 오직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보좌의 신실한 분배자들(dispensateurs)이었다는 것입니다." 24e sermon sur 1er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6.

49) *Commentaire*, 2e Pierre, 1:20, IV, 626.

50) D. McKim, "Calvin's View of Scripture," in *Reading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house, 1984),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31.

그리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위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구름들이 갑자기 쏟아져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51)</sup> “여기서 말하는 (하늘 위의) 물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비와 우박과 눈을 만들어 주는 수증기들입니다.”<sup>52)</sup>

칼빈은 마태복음 2:23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를 주석하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sup>53)</sup> 칼빈은 에베소서 2:5를 주석하면서, “여러분은 은혜로써 구원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잘못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다. “나는 왜 다른 어떤 것이 여기에 끼어들어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에 부합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성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인다.”<sup>54)</sup> 또 그는 히브리서 9:2를 주석하면서 본문 중의 “첫째 장막”이란 말은 오류라고 보았다. “어떤 사본들은 ‘첫째 장막’이란 단어를 갖는다. 그러나 나는 그 단어 장막에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지한 어떤 독자가 접속법이 없는 형용사의 존재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장막이란 걸 엉터리로 첨가했다.”<sup>55)</sup> 그리고, 디모데전서 1:3 주석에서는, “거기서 한 마디 한 마디 충실하게 보면 ‘네가 명하기 위하여’이지만 나는 ‘나는 네가 명하기를 원했다’고 번역했다. 왜냐하면 문장에 어떤 것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하여’란 단어는 쓸데없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다.”<sup>56)</sup>

그리고 야고보서 4:7 주석에서, 그는 많은 사본들에 “그리고 그가 말하긴 하지만(Et pourtant il dit)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비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구절이 들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말한다. “그러나 다른 것들 속에서는 그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에라스무스는 어떤 학구적인 사람이 책의 여백에 그것을 적어놓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본문과 혼동되어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sup>57)</sup> 칼빈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

51) Commentaire, Genèse, 1,6, *Commentaires Bibliques, Le Livre de la Genèse* (Genève: Labor et Fides, 1961), 28-29.

52) 3e sermon sur la Genèse, fo.13-13 vo., R. Stauffer, 184-185 재인용.

53) Commentaire, Math., 2,23, I, 92. “여기서 어떤 예언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과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성서의 책 속에는 거기에 대한 증언이 없기 때문이다.”

54) Commentaire, Eph., 2,5, III, 769. cf. 이하 칼빈의 영감설을 설명하는 성서 주석의 인용들은 대부분 E. Doumergue, 76-78에서도 인용된 것임.

55) Commentaire, Heb., 9,2, IV, 451.

56) Commentaire, 1er Tim., IV, 186.

의 기적에 놀란 “그들”이 누구인지를 추정하면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기록한 마가와 누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성 마가와 성 누가는 이것을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취했다고 말한 뒤에, 그들은 그들이 두려움으로 소리 질렀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이 말씀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합당하다.”<sup>57)</sup>

또 칼빈은 마태복음 2:6의 “그리고 너 베들레헴 유다 땅”을 주석하면서 “서기들이 예언서에 기록된 구절을 자기들의 언어로 한 단어 한 단어 충실하게 옮겨 적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고 평가했다.<sup>58)</sup> 마태복음 27:9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것이 이뤄졌다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크게 고심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것은 그 자체로는 스가랴 대신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적어놓음으로써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는 이 말이 전혀 없고, 그 비슷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sup>59)</sup>

그뿐만 아니라 칼빈은 사도행전 7:14 이하의 내용 중 “요셉이 친족 75 명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70명이라고 했던 창세기 46:27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sup>60)</sup> 또 같은 본문에서 야곱이 묻힌 무덤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데 대해 “분명히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오류가 있으며… 따라서 이 구절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sup>61)</sup> 마태복음 9:18 야이로의 딸의 부활 이야기에서 “시간의 순서는 언제나 유의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누가복음 4:5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시간의 흐름을 언제나 중시해서 이야기의 즐거리를 배열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성 누가가 성 마태가 셋째라고 적었던 시험을 두 번째로 배치했던 데 대해 너무 고심할 필요는 없다.”<sup>62)</sup>고도 했다. 마태복음 27:51에서는 성 누가가 기록한 성전 휘장의 갈라짐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서에 대해서 누가는 “순서를 뒤바꾸어 놓았다.”고 했다.<sup>63)</sup> 고린도전서 2:9 주

57) Commentaire, Jacques, IV, 727.

58) Commentaire, Math., 8:27, I, 242.

59) Commentaire, Math., 2:6, I, 75-76.

60) Commentaire, Math., 27:9, I, 690.

61) Commentaire, Actes, 7:14-16, II, 552-553.

62) Commentaire, Actes, 7:16, II, 554; 매컴, 27.

63) Commentaire, Math., et Luc 4:5, I, 121.

64) Commentaire, Math., 27:51, I, 720.



석에서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을 평한다. “그런데 내가(이 구절을) 가까이 들여다볼 때 두 개의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첫째는 여기서 성 바울에 의해 인용된 말씀들은 예언자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성 바울이 예언자의 의미에 반해서 예언자의 증언을 오용한 것 같다는 것이다.”<sup>65)</sup>

그런 점들을 볼 때 칼빈의 영감설은 기계적이거나 축자적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 점은 그가 성서의 여러 책들의 저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부인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가령 그는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들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했고,<sup>66)</sup> 베드로후서의 베드로 저작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것들(베드로 전, 후서)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나 유사성이 제시될 수 있으나, 나는 거기에 대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 차이 때문에 그것들은 다른 저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견해는 이렇다. 즉 이 서신이… 그에(베드로) 의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명예 의해서, 그의 제자들 중의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시대의 필요성이 요구하는 것을 간략히 수집하고 포함시켰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왔다는 것이다.”<sup>67)</sup>

그렇다면 칼빈의 영감설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서의 완전성을 설명하면서, 성서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진리인 까닭은 문장의 아름다움이나 기교, 문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능력” 또는 “교리”에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성서가 그 자체의 진리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말의 기교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진리는 다른 어떤 도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자신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능력은 성서에 고유한 것으로서, 인간의 모든 기록들에는, 그 기교가 세련되고 우아하더라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생명력은 전혀 가지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서 가운데서 그의 지혜를 얼마나 정연하게 잘 배열하셨는지, 그의 교리가 얼마나 천상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지…를 성실하게 고찰한다…”<sup>68)</sup> 또

65) Commentaire, 1er Cor., 29, III, 306. 칼빈은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로마서 주석에서도 지적한다. “이 구절은 독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즉 성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화제에 부적합하게 적용했으며, 또 단어들도 이상한 의미로 변형시킨 것 같다.” Commentaire, Rom. 10;6-7, III, 182.

66) Commentaire, Jacques, Argument, III, 780; Jude, Argument, IV, 694.

67) Commentaire, II Pierre, Argument, IV, 743; E. Doumergue, IV, 76.

68) 이상 Institution, I, 8/1.

칼빈은 신약성서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속한 문체”(style bas)나 “단순함”(simplicité)에 트집 잡지 말고 “본체”(substance)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들 복음서 기자들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하늘의 신비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sup>69)</sup>

그러므로 칼빈의 영감설은 “교리적” 또는 “내용적”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 것은 다음과 같은 글들을 통해 볼 때 더 분명해진다. “여기서 사도는 그 말들이 예언자에게 들어 있던 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단지 그 말의 의미와 내용만을 받아들였다.”<sup>70)</sup> 그리고 시편 68:18을 말하면서 “성 바울은 그 증언을 자기 말에 적용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의 참된 의미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가 성서를 오용했다고 비난한다… 성 바울은 성서를 인용하기는 하지만 단어들을 그대로 (그 고유한 단어들을) 인용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그는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만족함으로써, 그는 오히려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다. … 간략히, 여기서는 시편의 문자적 의미를 면밀하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 바울은 예언자의 말씀들을 단지 암시한 것이기 때문이다.”<sup>71)</sup> “사도들은 성경에서 증언들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내용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단어들에 집착하지는 않았다.”<sup>72)</sup>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령한 교리에서 스승이고 박사이기 위하여… 신앙의 어떤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 허용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예외 없이 약속시킨 교리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3)</sup> “성 바울은 시편의 구절을 간단히 지적하면서 시편에 표현되지 않은 것을 덧붙일 자유를 취했다.”<sup>74)</sup>

그래서 칼빈은 결국 성서는 그 자체가 주어지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가 가르쳐져야 하고 설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목사들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성서는 우리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requis) 모든 것을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각 사람이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성서를 앞에다 갖다 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

69) *Institution*, I, 8/11, 1560년 프랑스어판은 8/10.

70) *Commentaire*, Rom., 11:8, III, 184.

71) *Commentaire*, Eph., 4:8-9, III, 796-797.

72) *Commentaire*, Heb., 3:9, IV, 393.

73) *Institution*, IV, 8/9. cf. E. Doumergue, 78.

74) *Commentaire*, Eph., 4:8, III, 796.

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무한한 선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두 번째 수단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교리가 설교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서 그는 그의 교회에, 그것을 가르치는 임무와 직책을 가진 목사들을 세우셨습니다.”<sup>75)</sup>

친절하게도 칼빈은 “성서의 교리” 또는 “성서 안에 담겨 있는 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즉 성서에서 계시되는 교리, 즉 정말 중요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성서의 고유한 내용을 밝혀 준 것이다. “요컨대 이것이 성서의 교리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믿으며, 우리가 그분에게서 피난처를 찾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선언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 주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씻겨졌으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로 세워 주신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에게 나아갈 때 그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그에게 구해야 하는 연합(fiance, 믿음)이 거기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죄와 저주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할 바를 다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서 안에 담겨 있는 교리입니다.”<sup>76)</sup>

## VI. 신약성서와 구약성서

칼빈 당시 세르베투스나 일부 재세례파들은 구약성서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sup>77)</sup> 칼빈은 그들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 신약과

75) 25e sermon sur 2e Timothée, 4:1-2, *Opera Calvini*, LIV, 295.

76) 24e sermon sur 2e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8-289.

77) *Institution*, I, 10/1.

구약의 관계를 논했다. 그는 그것을 기독교 강요에서는 2권 10장, 11장에서 비교적 길게 다루었다.

먼저, 칼빈은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을 다음 세 가지로 지적한다. 그것은 “첫째,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세상적인 번영과 행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멸의 희망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둘째,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었던 계약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자비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셋째, 그들도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받아서 알고 있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78)</sup>

칼빈은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또 장황하게 논하면서 두 성서의 유사점을 설명했다.<sup>79)</sup> 그 논의의 결론은 이렇다. “구약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계약의 보증이자 담보로서 그리스도를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의 축복에 대한 모든 믿음을 그에게 두었다는 점이다… 구약성서나 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단지 세상적인 것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약속까지를 포함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안식하는 하늘의 왕국과 다른 어떤 것을 약속하지 않으신다.” 그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시고 고난 받았던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우리들 못지않게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주셨다.”<sup>80)</sup> 이 점에 관해, 최윤배는 마르틴 부처의 성서관에 관한 연구 속에서, 칼빈이 부처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칼빈은 부처에 따라서 구약성서 역시 중보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은혜의 계약이라고 봄으로써, 신, 구약성서 사이의 통일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sup>81)</sup> 그것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체류하면서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신약과 구약성서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섯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구약은 약속들로서 “가려진 방식”(quelque peu enveloppé)의 계약이었다는 것이다. “그가(하나

78) *Institution*, II, 10/2

79) *Institution*, II, 10/3-22

80) *Ibid.*, 10/23.

81) 최윤배,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8집(2000), 243-244.

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느 정도 가려진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 그는 한편으로는 그가 그들에게 약속하는 영원한 복은 이 세상의 복들 아래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자들에게 내려져야 하는 영원한 저주는 육체적인 형벌들 아래에서 의미하고 상징하셨다.”<sup>82)</sup> 둘째, 구약은 상징(figure)이었다는 것이다. 즉 “구약은 실체가 아직 없이 그 실체 대신에 형상이나 몸체 없는 그림자로서 보여준다. (그러나) 신약은 현재의 실체와 본체를 포함하고 있다.”<sup>83)</sup> 셋째, 그것은 바울이 말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도 같다. 즉 전자는 “문자적이고 후자는 영적”이다. 율법은 돌판에 새겼고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새겼으며, 전자는 정죄를 후자는 의를, 전자는 사라져 버리고 후자는 영속한다.<sup>84)</sup> 넷째, 역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은 노예이고 신약은 자유이다. “구약은 노예의 계약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킨다. (반면에) 신약은 자유의 계약으로 불리며,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그들을 견고케 한다… 구약은 양심들을 노예의 명에로써 옹죄고 강제하지만, 신약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킨다.”<sup>85)</sup> 다섯째, 구약은 한 백성만을 위한 것이고, 신약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랫동안 한 백성에게만 국한되었던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던 자들이나 멀리 있던 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셔서 그들이 한 몸 가운데 연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차별이 없게 되었다.”<sup>86)</sup>

그러나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다. 다만 “제공된 순서”<sup>87)</sup> 또는 “다양한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식들”이 다를 뿐이다. 칼빈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만일 농부가 자기 종들에게 겨울에는 여름에 했던 일과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해서 그가 변덕스럽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또 “교육자가 아이들을 청년기에는 유년기와 다르게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해서… 그가 경망스럽고 잘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sup>88)</sup> 그래

82) *Institution*, II, 11/3.

83) *Ibid.*, 11/4.

84) *Ibid.*, 11/7.

85) *Ibid.*, 11/9.

86) *Ibid.*, 11/11.

87) *Ibid.*, 10/2.

88) 이상 *Ibid.*, 11/13.

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같은 교리를 명하셨다... (그러나) 그가 형식과 외적인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그가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변하기 쉬운 사람들의 능력에까지 자신을 적응하기를 위하셨던 것이다.”<sup>89)</sup>

그래서 칼빈은 구약성서는 성서에서 배제되거나 소홀히 여겨질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모데후서 설교에서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우리는 지금 성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서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그로부터 혹은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서 기자들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구약성서밖에는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율법과 예언서들이, 마치 그것이 영원히 남아야 하는 교리처럼 언제나 설교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봅니다.”<sup>90)</sup>

또 그는 구약성서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영원히 존속된다고도 했다. “율법과 예언서들은... 우리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되도록 일시적인 교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이(교리)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을 가지며,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멸망하고 하늘과 땅이 무너질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서들의 권위는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sup>91)</sup>

요컨대 구약성서는 신약성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신약이 주어진 것도 구약과 같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지,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복음은 율법이나 예언서들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서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읽어 보고 파헤쳐 봅시다. 우리는 율법이나 예언서에 덧붙여진 한 음절도 찾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 거기에서 가르쳐졌던 것의 선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살았던 유대인들보다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훨씬 더 분명하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덧붙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

89) *Ibid.*

90) 24e sermon sur 1er Timothée, 3,16-17, *Opera Calvini*, LIV, 283.

91) *Ibid.*, 284.

바울이 우리가 율법과 예언서들에서 온전한 의를 찾으라고 선언한다고 해도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과 신약으로 된 모든 성서 안에는 상당한 동일성(bonne conformité)이 있습니다.”<sup>92)</sup>

## VII. 결론

칼빈의 성서론을 마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칼빈에게서 성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그것은 인간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고 통로이다. 성서는 인간의 구원에 “유익하고”, “필요하고”, “좋고”,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성서는 하나님과 창조와 섭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는다. 성서는 오직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성서를 그 관점에서 읽어야지, 다른 어떤 지식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을 수는 없다. 가령 사람들이 성서에서 우주의 기원이나 역사, 법칙, 자연의 원리 등을 찾아내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서 안에 ‘과학적’이라고 보이는, 또는 과학과 관계되는 것 같은 진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서는 그것을 물리학이나 생물학적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과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것일 뿐이다.

둘째, 칼빈은 성서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었다. 즉 성서의 신적 기원을 믿었고, 바로 그 점에서 성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 주지하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성서의 권위와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칼빈은 성서를 교회보다 우선적이고, 우월한 것으로 간주했다.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거, 곧 성서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성서의 빛에 따라 세워지고, 유지되고, 인도된다. 교회가 성서의 빛에서 멀어지면, 교회는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또 칼빈이 성서의 권위를 기원에서 찾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이라는 목적’에서 찾았던 루터와 대비되는 특징이다. 물론 칼빈은 루터의 사상과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에서 성서의 ‘생명력’을 찾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기원’을 중시한다. 성서가 하

92) *Ibid.*

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점에서 모든 성서들은 원칙적으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복음서이든 계시록이든,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셋째, 칼빈은 성서의 영감설을 믿었다. 즉 그에게서 성서는 신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러나 그가 기계적이거나 축자적인 영감설을 주장했다고 보는 것은 오류이다. 그의 저작들은 그의 영감설이 교리적 혹은 내용적이었던 점을 폭넓게 지지해 준다. 따라서 성서주의나 문자주의의 근거를 칼빈에게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칼빈에 따르면, 우리가 성서에서 봐야 하는 것은 그 교리와 내용, 즉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중심 사상일 뿐이다.

넷째, 칼빈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고,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들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두 성서는 모두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차이점은 구약은 실체가 아닌 상징 또는 그림자로서 계시되었다는 점이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과도 같이, 구약은 문자적이고 의무적이어서 노예의 계약인 반면, 신약은 영적이고, 마음에 새긴 자유의 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초점은 신약성서에 놓여지지만, 구약이 배제되거나 무시되는 일은 결코 없다.

끝으로, 특기할 만한 것은, 칼빈이 신약성서를 특별계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의 분류는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교의학자 헤르만 바빙크에게서 비롯되었다.<sup>93)</sup> 그 분류에 따르면, 신, 구약성서는 특별히 선택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계시이지만, 칼빈에게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그가 신, 구약성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볼 때, 구약성서는 “특권”적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신약은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자나 차별 없이, 열방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유업”으로 주어진 책이다.<sup>94)</sup>

#### 주제어

칼빈, 성서, 영감설.  
(Calvin, Bible, Inspiration)

93) E. Doumenge, 43; R. Stauffer, 19. cf. H. Bavinck, *Geneformeerde Dogmatiek*, I, 1865, 219.

94) *Institution*, II, 11/11.



참고문헌

- Calvin, J.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1-. Ediderunt G. Baum, E. Cunitz, E. Reuss. Brunsvigae: Apud C. A. Schwetschke et Filium, 1863-.
- \_\_\_\_\_.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60). éd. par J. Cadier. Genève: Labor et Fides, 1955-1958.
- \_\_\_\_\_. *Commentaires Bibliques: Le Livre de la Genèse*. Genève: Labor et Fides, 1961.
- \_\_\_\_\_.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4 volumes. Toulouse: Société des Livres Religieux, 1892-1894.
- \_\_\_\_\_. *Sermons in Supplementa Calviniana*. Neukirchen: Neukirchen-Vluyn, 1936-.
- Battles, F. L. "God Was Acco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Interpretation* 31, Richmond, 1977.
- Doumergue, 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 Dowey, E. A.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2ed printing. Grand Rapids: Eerdmans, 1994.
- Gounelle, A. *La Réforme et l'autorité des Ecritures*. Bruxelles: Eglise Protestante de Bruxelles, 1988.
- Haroutunian, J. *Calvin: Commentaries*. 이종태 역. 『칼빈 주석의 정수』.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McKim, D. *Reading in Calvin's Theology*. 이종태 역. 『칼빈신학의 이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Murray, J.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0.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6.
-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Parker, T. H. L.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9.
- \_\_\_\_\_.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신학입문』,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Stauffer, R. *Dieu, la Création et la providence dans la prédication de Calvin*. Berne: Peter Lang, 1978.
- Warfield, B. B. *Calvin and Augustine*. ed. by S. G. Craig. Philadelphia: The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1.
- \_\_\_\_\_.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Princeton Theological Review* (1909).
- Wendel, F.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2e éd. Genève: Labor et Fides, 1985.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 김이곤. "칼빈의 성서관." 『칼빈 신학의 현대적 이해』. 서울: 한국신학대 출판부, 1978.
-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7.
- 신복윤.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오갑. "칼빈의 신론-초월과 임재의 변증법적 하나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집(2004).
- \_\_\_\_\_. "칼빈의 신인식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4집(2006).
- \_\_\_\_\_. "갈뱅 세계관의 주요 문제-신과 상징 그리고 언어를 중심으로." 『기독교 언어문화논집』 제1집(1997).
- 최윤배. "개혁과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에게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8집(2000).

### Bible of Calvin

Lee, O-Kab  
Associate Professor  
Korea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For Calvin,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It consists in the Law, the Prophets and the Gospel. Strictly speaking, the Bible is the records of the Word; it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Word. Calvin differentiates the Word from its records. According to him, God's Word is contained in the Bible. The Bible is not the Word itself. The men find God and His Word in the Bible, They know God in the Bible. It is God, not the Bible, they belie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ble and the Word is that of *form* and *contents*, *symbol* and *substance*, or *means* and *end*.

The Bible is written for the men with purpose of saving them from their sins, and to lead them to the life from the death. It is the key to understand Calvin's view that the purpose of the Bible is the salvation of the men. For Calvin, the Bible is not the book of whole knowledges of men, nor a textbook of physics or biology that explains the mystery of the nature and the universe. The Bible is the book of the salvation of the humankind. It contains the '*utile*', '*necessaire*' and '*propre*' knowledges for the salvation of human beings.

Calvin finds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at comes from the origin of God. The Bible has its own authority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From this perspective, Calvin is contrasted with Luther who insists the authority of the Bible comes from its purpose, that is Christ and his Gospel.

Calvin's biblical inspiration is one of the most disputed subjects. Many scholars have debated about Calvin's view of the biblical inspiration. What is his inspiration? Is it the literal, verbal or doctrinal? To solve the problem, we must investigate to Calvin's own writings as much as possible. We ought to conclude the problem, not by insistence but by proof, along with his own text and its exact meaning. Consequently, it is evident that his inspiration is not literal nor verbal, but doctrinal or subsistential. Even if Calvi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ible exceedingly, the biblism or literalism is not possible for him. The Bible is not Paper-Pope but the book of the Divine Word.